

담화글의 이해과정: 대명사 참조해결의 성별 표지와 초점 효과

이 정 모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이 재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애매한 조건에서 선행어의 성별표지와 선행어의 초점이 참조해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개의 실험에서 관찰하였다. 실험 1은 선행어가 역할명사(예; '의사')인 조건에서 자율조절 읽기과제와 탐사재인과제를 사용하여 선행어의 성별범주, 선행어 위치 및 속성 일치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선행어의 성별 범주와 선행어 위치 효과가 관찰되었고, 선행어의 성별 범주와 선행어 위치가 상호작용하였다. 선행어의 성별 표지가 남성인 경우는 위치 효과가 있었지만 여성인 경우는 위치 효과가 없었다. 실험 2는 고유명사(예; '미라') 조건에서 실험 1의 독립변인에 대한 효과를 다시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어 위치의 주효과만 관찰되었다. 두 실험은 성별단서가 애매한 조건에서 선행어의 위치가 초점효과를 제공하여 참조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선행어가 일반명사인 경우는 성별범주의 표지효과 또한 그 영향력이 크다는 증거를 얻었다. 반면에 속성의 일치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대명사의 참조해결의 초점가설이 타당하다는 증거이다.

주제어: 대명사, 성별표지, 초점효과, 담화글 이해

이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지원(KRF-2002-074-HS1002)으로 수행되었다.
교신저자: 이 정 모, (110-745) 서울 중로구 명륜동 53,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E-mail: jmlee@skku.edu

담화글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어휘의 하나가 대명사이며, 대명사와 대명사가 지칭하는 선행어를 연결하는 참조처리는 담화글의 응집적 의미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Garrod & Sanford, 1990; Gernsbacher, 1989; Oakhill, Garnham, & Vonk, 1989; 이재호, 1998). 대명사는 그 자체의 의미적 정보는 미약하지만 담화글의 맥락과 통사적 정보에 근거하여 선행어의 의미를 대치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대명사가 지니는 통사적 정보로는 성, 수, 격, 인칭 등이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대명사가 포함된 문장과 그 선행어의 통사적 제약과 의미적, 화용적 맥락이 대명사의 참조해결 과정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Gernsbacher, 1990; Sanford & Garrod, 1981). 대명사의 참조해결에서 통사적 단서 중심의 정보처리에서 과연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선행과 후행 문장의 맥락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담화이해 연구자들의 계속된 관심의 주제이다. 이 연구는 특히 대명사의 참조해결과정에서 대명사의 통사 특성이 선행어의 의미 특성과 후행 문장의 맥락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명사가 사용된 담화글의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은 착한 학생에게 칭찬을 하였다. 그는 칭찬하기를 좋아한다.' 두 문장은 대명사의 '그'가 지칭하는 적절한 선행어가 할당되어야 응집적으로 연결된다. 대명사는 통사단서만 지니고 있기에 일반 명사에 비해서 이해되는 과정이 독특하다(Sanford & Garrod, 1989). 후행 문장에서 대명사 대신에 '그 선생님'과 같은 명사구가 제시되면 선행어 할당이 쉽지만 '그'가 제시되면 대명사의 의미 정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어 할당이 복잡해진다. 즉 예문의 '그'에 해당하는 두 개의 후보 선행어가 있으며 적절한 선행어를 할당하여야 비로소 담화글이 이해된다.

대명사는 예문처럼 선행어의 할당에서 통사단

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해자는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한다. 대명사 참조해결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대명사의 통사적 단서에 초점이 주어져왔다. 특히 성별단서가 연구의 핵심이 되어 왔다(예; Corbett & Chang, 1983; 이재호, 1993; 1998). 그런데, 대명사의 참조해결에서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애매하여 통사 단서만으로 선행어의 참조해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가? 대명사의 참조해결의 단서가 없는 경우는 참조해결을 중단하고 적절한 단서가 제공되는 시점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어떤 단서에 의해서 잠정적 선행어를 선택한 다음에 적절한 맥락을 통해서 재 할당하는 전략을 사용하는가? 이들 과정에는 어떤 제약들이 어떻게 작용하여 애매성을 해결하는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 (1a) 의사는 부인을 진찰하였다.
- (1b) 의사는 신사를 진찰하였다.
- (2) 그는 진찰결과를 알려주었다.

담화글의 예문에서 (1a)와 (2)를 읽는 경우와 (1b)와 (2)를 읽는 경우에 문장 (2)의 처리는 매우 다르다. (1a)는 두 선행어의 성별이 다른 조건이며 (1b)는 성별이 동일한 조건이다. 두 조건은 대명사의 성별단서만으로 선행어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참조해결 과정의 차이를 성별단서의 애매성(ambiguity) 효과라 부른다. 선행 연구에서 얻어진 일반적인 결과는 성별단서가 분명한 조건이 애매한 조건에 비해서 대명사 문장(예; (2) 문장)의 읽기시간이 짧으며(Frederiksen, 1981; Matthews & Chodorow, 1988), 선행어의 탐사시간이 (1a)의 '의사'가 (1b)의 '의사'보다 빨랐다(Corbett & Chang, 1983).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대명사의 성별단서

가 선행어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는 통사 단서(syntactic cue)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였다(예; Frederiksen, 1981; Matthews & Chodorow, 1988; Nicol & Swinney, 1989).

이재호(1993)는 성별단서의 효과와 작용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시간경과적 접근과 다중 과제적 접근을 동시에 시도하였다. 먼저, 대명사 문장의 마디별 읽기과제를 사용하여 애매성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2)의 예문에서 ‘그는’을 읽는 시점에는 애매성 효과가 없었지만 ‘진찰결과를’ 마디와 ‘알려주었다.’ 등의 마디에서 애매성 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성별단서가 애매한 조건이 명료한 조건보다 읽기시간이 길었다. 이는 대명사를 읽은 다음 시점부터 애매성에 의한 처리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애매성 조건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났기에 읽기시간이 길어졌는가? 이재호(1993)는 대명사의 처리가 끝난 시점부터 선행어와 비선행어의 활성화 수준을 시간경과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그는’을 읽은 시점에서 선행어(예; ‘의사’)와 비선행어(예; ‘부인’ 혹은 ‘신사’)에 대한 탐사 재인시간을 비교하였다(ISI 0, 250, 500, 1000ms)¹⁾. 그 결과, 성별단서가 명료한 조건에서는 선행어와 비선행어의 반응 차이가 즉각적으로 관찰되었지만 애매한 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지연되어 관찰되었다. 선행어 성별이 명료한 경우 선행어와 비선행어의 활성화 수준의 차이가 ISI 0-250ms에서 관찰되었으나, 성별단서가 애매한 경우는 그 차이가 ISI 250-500ms 조건에서만 관찰되었고, 특히 선행어가 주어인 조건에서 관찰되었다. 이 결과에 근거하면, 대명사는 성별단서의 만족이 참조해결에 중요하며, 성별단서만으로 선행어를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가능

한 선행어를 모두 활성화시키고 선행글 맥락이나 후속글 맥락을 적용하는 추가 과정이 일어난다. 이들 과정이 처리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예; Corbett & Chang, 1983; 방희정, 1990).

대명사의 참조해결은 다음의 세 가지 가설로 정리된다. 첫째는 재활성화(reactivation) 가설이다(예; Frederiksen, 1981; Matthews & Chodorow, 1988; Nicol & Swinney, 1989). 이 가설에 따르면 대명사의 성별단서는 선행어의 활성화 수준을 촉진하며, 성별단서가 애매하면 선행어가 통사적 주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대명사의 통사단서에 의해서 단원적이며 상향적인 과정으로 참조해결이 일어남을 강조한다. 둘째는 초점(focus) 가설이다(예; Garrod & Sanford, 1990; Gernsbacher, 1990; MacDonald & MacWhinney, 1990).²⁾ 이 가설은 대명사의 성별단서도 중요하지만 선행어의 초점효과를 강조한다. 즉 선행어의 언급순서, 선행어의 인과성, 선행어의 지식, 선행어의 유형 등이 초점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특히 대명사는 선행어의 초점에 민감하지만 선행어의 활성화 수준을 유지하는 기능을 지니며, 참조해결은 선행어의 활성화가 촉진되기보다는 비선행어를 억제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 가설은 대명사의 성별단서와 선행글의 초점이 상호작용하여 참조해결이 일어남을 강조한다. 셋째는 개념(conceptual) 가설이다(예; Gernsbacher, 1990; Greene, Mckoon, & Ratcliff, 1992;). 이 가설은 이해자의 화용적 지식이 참조해결에 중요함을 강조한다. 즉 선행어가 없거나 통사단서에 적절하지 않는 대명사나 심지어 대명사가 생략되어도 이해자 지식에 의해서 참조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예; Greene, Mckoon, & Ratcliff,

1) ISI (inter stimulus interval)는 자극간 제시시간의 간격을 의미한다.

2) 이 연구의 초점 가설은 Sanford와 Garrod(1981; 1998)의 ‘Focus Model’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1992의 ‘unhealed pronoun’; Gernsbacher, 1990의 conceptual anaphor). 이 가설은 선행글의 심적 표상과 이해자의 지식에 의한 하향적 과정을 강조한다.

이들 가설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참조해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재활성화 가설은 통사수준의 언어적 수준이며, 초점 가설은 의미수준의 담화클 수준이며, 개념 가설은 화용 수준의 이해자 지식 수준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활성화 가설과 초점 가설은 대명사의 성별단서의 중요성을 다른 제약에 비해서 강조하고, 초점 가설과 개념 가설은 담화클과 이해자 지식의 관계를 다른 제약에 비해서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재활성화 가설과 개념 가설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재호(1993)는 참조해결에서 성별단서가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별단서가 애매한 조건에서 선행어의 위치가 선행어의 축진적 활성화에 작용함을 보였다. 이는 재활성화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예; Matthews & Chodorow, 1988; Nicol & Swinney, 1989). 즉 대명사는 성별단서와 선행어의 위치에 따라 선행어의 활성화 수준이 확연히 되었다. 과연 성별단서와 선행어 위치 효과가 순수한 통사적 제약의 효과인가? 대명사 수준에서 성별단서는 통사제약이지만, 선행어의 수준에서 보면 성별은 의미 혹은 지식 제약으로 볼 수 있다. 선행어의 성별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일종의 고정관념적 사회 지식이다(예; Banaji & Hardin, 1996; 이재호와 방희정, 2003). Garnham, Oakhill, 및 Reynolds(2002)는 역할명사를 이해하는 동안에 역할명사의 의미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라는 역할명사를 담화클에 제시하면 의미 지식에 근거하여 ‘의사=남성’으로 추론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참가자가 다음 문장에서 ‘비키니

를 입었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외과의사=남성’의 추론과 ‘외과의사=비키니’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다. 또한 Carreiras, Garnham, Oakhill, 및 Cain(1996)은 참가자에게 한 문장에서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선행어(예; ‘전기기사’, ‘간호사’)를 제시하고 다음 문장에서 대명사(예; ‘he’ 혹은 ‘she’)를 제시하였다. 참가자에게 대명사가 포함된 문장을 읽게 하였을 때, 성별 고정관념적 단어의 성별과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일치하는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 비해서 문장의 읽기시간이 더 짧았다. 이들 연구는 선행어의 성별 의미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선행어의 성별 정보가 대명사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예; Kennison & Trofe, 2003).

대명사의 성별단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삼인칭 단수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영어의 삼인칭 대명사 ‘he’와 ‘she’는, 인칭단서는 3인칭으로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성별을 지칭한다. 국어에서도 단수 3인칭의 성별단서는 ‘그는’과 그녀는‘으로 구분하여 사용된다. 그런데 영어나 국어 모두 여성 대명사는 성별표지(gender marking)를 갖고 있다. 또한 선행어의 경우도 성별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유명사의 경우, ‘영희’는 여성이며, ‘철수’는 남성을 지칭한다. 그런데 역할명사의 경우는 다르다. ‘의사’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을 지칭할 확률이 높으며, ‘간호사’는 남성보다 여성을 지칭하는 확률이 높다. 그런데 여성의 역할은 남성에게 비해서 ‘여의사’ 등의 표지가 붙는 경우가 많다. 대명사 참조해결은 ‘대명사-선행어’의 응집적 참조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대명사나 선행어의 성별이 표지단서에 의해서 비대칭적이라면 성별단서의 탐색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예측될 수 있다. 특히 국어는 전통적으로는 ‘그녀’라는 대명사는

없었다(예; 김미형, 1995). 따라서 영어보다 국어에서 표지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Sanford와 Garrod(1981)와 Garrod와 Sanford(1990)는 선행어의 유형인 고유명사와 역할명사, 그 자체가 대명사의 참조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담화글에서 고유명사는 실체(entity)를 지칭하며 역할명사는 역할(role)을 지칭하며, 고유명사는 개인을 지칭하기 때문에 역할명사에 비해서 초점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인공이 역할명사(예; '의사')이면 일반 의미 수준에서 표상되기에 글의 상황에 쉽게 연계되지만, 고유명사(예; '영희')는 구체 대상의 수준에서 표상되기에 글의 상황보다는 개별 실체에 대한 초점효과가 강하다고 하였다. 그 초점효과는 일반 내용어보다는 대명사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선행어의 대응 명사 자체가 초점효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어의 위치는 어떠한가? 재활성화 가설에서는 선행어의 위치는 통사적 제약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재호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문장의 첫째 어휘는 그것이 통사적 주어이던 의미적 행위자이던 관계없이 둘째 어휘보다 접근이 빨랐다. 이는 통사적 주어나 의미적 행위자를 통제할 조건에서도 관찰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첫째 어휘는 둘째에 비해서 언어의 통사보다는 화용적 맥락에 의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예; Gernsbacher, 1990; Kim, Lee, & Gernsbacher, in press; Sanford & Garrod, 1981). 따라서 선행어의 위치는 이해자의 화용적 지식이 작용된 제약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선행어의 위치 또한 초점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이다.

종합하면, 선행 연구들은 대명사의 성별단서와 선행어의 초점효과가 참조해결의 핵심적 제약임

을 강조하였다(예; Matthews & Chodorow, 1988; Garrod & Sanford, 1990). 그러나 설명 수준에서 가설들간에 차이가 있었다. 재활성화 가설은 성별단서와 통사구조의 효과를 강조하였고, 초점가설에서도 성별단서와 선행글의 초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별단서는 성별에 따른 표지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예; 이재호와 방희정, 2003), 선행어의 성별속성의 활성화는 자동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예; Carreiras, Garnham, Oakhill, & Cain, 1996). 이는 두 가설에서 가정하지 못한 제약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들 제약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대명사의 참조해결의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실험 변인을 상정하였다. 선행어의 성별범주, 선행어의 위치, 및 속성 일치성이다. 성별범주는 일반적으로 대명사와 선행어의 성별단서가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성별표지가 분명하다. 성별범주 변인은 성별 표지에 따른 참조해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정되었다. 선행어 위치는 선행어의 화용적 맥락을 제공하는 초점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선행어의 성별의미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고정관념적 속성의 하향적 효과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행어의 성별 지식이 대명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어를 수식하는 속성 형용사의 일치성 효과를 조작하였다.

이들 세 변인의 효과는 대명사의 선행어가 두 개이며 선행어의 성별이 동일한 조건에서 탐색되었다. 실험과제로 선행글에 대한 자율조절 읽기과제(self-paced reading task)와 선행어의 탐사재인과제(probe recognition task)가 사용되었다. 읽기과제를 통해 대명사를 이해하는 동안과 후속 맥락의 온라인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탐사재인과제는 독립변인에 따른 선행어의 활성화 수

준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예; 이재호, 1998). 또한 선행어의 유형인 고유명사와 역할명사, 그 자체가 대명사의 참조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이 Sanford와 Garrod(1981)와 Garrod와 Sanford(1990)에게서 제기되었다. 그들은 담화글에서 고유명사는 실체(entity)를 지칭하며 역할명사는 역할(role)을 지칭하며, 고유명사는 개인을 지칭하기 때문에 역할명사에 비해서 초점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인공이 역할명사(예; ‘의사’)이면 일반 의미 수준에서 표상되기에 글의 상황에 쉽게 연계되지만, 고유명사(예; ‘영희’)는 구체 대상의 수준에서 표상되기에 글의 상황보다는 개별 실체에 대한 초점효과가 강하다고 하였다. 이 주장은 선행어 유형에 따라 세면인의 차별된 효과를 관찰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실험 1은 선행어가 역할명사인 조건에서 관찰하였고, 실험 2에서는 선행어가 고유명사인 조건에서 관찰하였다.

실험 1. 선행어가 역할명사인 조건

실험 1은 선행어가 역할명사인 조건에서 성별 범주, 선행어 위치, 및 속성의 일치 효과가 참조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대명사나 선행어는 성별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지만 남녀의 성별에 대한 언어와 지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영어는 ‘he’와 ‘she’에서 여성 대명사에 표지가 있으며, 국어 역시 ‘그녀는’에서 여성에 대한 표지가 있다. 역할명사에서 보면 여성과 남성의 역할명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남성이 애초값이며, 여성은 ‘여의사’로 표기된다. 물론 여성 역할을 나타내는 고유 역할명이 있지만(예; ‘간호사’) 남성 역할에 비해서 그 수도 적기 때문에 여성 역할은 남성에 비해서 현출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사가 주사하였다.’와 ‘여의사가 주사하였다.’는 의사보다 여의사가 실체에 대한 구체성이 높으며 초점효과가 더욱 크게 관찰될 것이다.

더욱이 Banaji와 Hardin(1996)은 점화-목표 조건을 일반 명사(예; ‘doctor’)-대명사(예; ‘he’) 조건으로 조작하여 성별의 일치효과를 관찰하였고, Carreiras 등(1996), Garnham 등(2002), Kennison과 Trofe(2003) 등의 연구에서는 선행어의 성별속성이 참조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이는 성별범주의 활성화는 성별의 고정관념적 속성도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만약 대명사의 참조해결에서 이변인의 효과도 탐지된다면 대명사는 의미 수준을 넘어서 화용 수준의 심적 모형에 민감한 처리도 가능하다는 증거가 된다.

관련된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가정된 주요 변인은 선행어 위치 변인이다. 이재호(1993)는 선행어의 제시 순서에 따라서 선행어의 활성화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 절차는 Gernsbacher(1989)의 연구를 반복하였지만 두 가지 조건에서 차이가 있었다. 첫째는 실험재료에서 선행어를 고유명사 대신에 역할명사를 사용하였고, 둘째는 선행어의 위치(주어 혹은 목적어)를 독립 변인으로 조작하였다. 그 결과, 선행어가 목적어일 때보다 주어일 때 반응시간이 빨랐다. 이는 선행어나 비선행어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명사가 선행어와 비선행어의 촉진 활성화 수준과 억제 활성화 수준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실험 1에서는 이재호(1993)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선행어 문장과 대명사 문장을 자율조절로 읽게 한 다음 250ms 지연 후에 선행어에 대한 탐사재인과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선행어의 성별,

위치, 및 속성 일치성의 세 독립변인을 조작하였다. 선행어의 성별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지만 성별단서를 세분하거나 선행어의 성별정보를 구체화한 연구는 없었다. 실험1에서는 성별의 표지효과와 성별의 고정관념적 속성의 일치효과를 통해서 성별단서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별단서가 선행어의 위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초점효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재활성화 가설에 따르면, 대명사의 성별단서에 의해서 선행어가 재활성화되기 때문에 선행어의 성별표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선행어의 위치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Frederiksen, 1981; Swinney, 1991), 반면에 초점 가설은 선행글의 맥락이 대명사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선행어 위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Garrod & Sanford, 1990; Gernsbacher, 1990). 개념 가설은 선행글의 하향적 처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변인보다는 속성의 일치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며, 위치효과도 부분적으로 관찰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방 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한 4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 중에서 2명의 참가자는 오류반응이 많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실험설계 실험 1에서는 선행어 성별(여성, 남성), 선행어 위치(주어, 목적어), 및 속성 일치성(일치, 불일치)의 세 개의 독립변인이 조작되었다. 이들 변인은 모두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단지 선행어 성별은 실험재료에서는 항목간 변인이었으며 재료분석에서는 피험자간 변인으로 분

석되었다. (2*2*2) 삼원 피험자내 요인설계가 사용되었다.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이재호(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글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에 사용한 글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선행어 문장: 똑똑한(상냥한) 의사(여의사)가
침착한 노인사(노부인)를 진찰하였다.

대명사 문장: 그는(그녀는) 검사결과를 알려주었다.

그는(그녀는) 검사결과를 받았다.

첫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에서 제시된 대명사의 선행어가 포함된 맥락 문장이다. 이 문장에는 대명사의 후보 선행어가 될 두 개의 명사가 주어와 목적어에 각각 제시되었다. 두 후보 선행어는 모두 역할명사이며 둘 중의 하나가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의 선행어가 된다. 두 후보 선행어는 같은 성별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는 삼인칭 단수 대명사인 ‘그는’ 혹은 ‘그녀는’ 이었고 주어에 제시되었다. 그 다음의 서술부는 대명사의 선행어의 행위를 기술하는 내용이었다. 실험글은 선행어 성별에 따라 별도의 재료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성별단서가 애매한 조건에서 참조해결의 과정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선행어 문장에는 같은 성의 두 역할 주인공이 제시되었다. 여성(예; ‘여의사’와 ‘노부인’) 혹은 남성(예; ‘의사’와 ‘노신사’) 역할을 주인공으로 하는 12개씩의 재료 글이 구성되었고, 각 역할 내에는 선행어 위치(주어 선행어 지칭 혹은 목적어 선행어 지칭)와 속성 일치(후보 선행어와 수식 형용사의 고정관념적 속성이

일치하는지에 따른 조건)에 따라 네 벌씩의 이형 (version 혹은 판본)이 구성되었다. 각 이형은 선행어의 위치 변인과 속성 일치성 변인의 네 조건에 3개씩의 실험글이 할당되었다. 각 참가자는 네 벌의 이형 중의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다. 한 참가자는 모두 24개의 실험글에 대한 반응을 하지만, 각 조건의 재료는 중복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실험글의 제시순서는 참가자에 따라 무선적이었다. 실험글에 더하여 모두 48개의 삽입글이 사용되었다. 삽입글은 실험글과 문장 길이와 형식은 비슷하지만 반복된 단어나 의미는 없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탐사재인과제에서 ‘아니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삽입탐사재인어 32개는 삽입글에 없었던 무관 단어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절차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4개의 연습글이 사용되었다. 실험 1은 실험글과 삽입글 그리고 연습글을 포함해서 모두 56개의 재료가 사용되었다(부록 참조).

실험절차 모든 실험은 IBM-PC 호환기종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개인별로 컴퓨터에서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간략하게 실험의 절차를 설명한 후에 화면에 제시되는 실험 지시문을 읽게 하였다. 지시문에서는 실험은 연습시행, 본 시행으로 구성되었고, 각 시행에는 이해검사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실험절차를 단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자는 참가자를 컴퓨터에 앉게 한 후 위에서 설명한 내용의 지시문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읽게 하였다. 실험의 한 시행이 시작되면 먼저 컴퓨터 화면의 중앙의 특정 위치에 ‘++++’와 같은 응시 표시가 750ms동안 제시하였고, 이 표시에 참가자의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이 표시가 사라지면 실험글이 화면의 중간에 한 문장씩 제시되었다. 화면에 문장이 제시되

면 참가자는 평소에 문장을 읽는 속도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 반응키(‘/’)를 누르게 하였다. 반응키를 누르면 첫 문장은 사라지고, 같은 위치에 두 번째 문장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문장에 대한 반응을 마치면 화면의 중앙에 ‘- -’ 사이에 단어가 나타나게 하였다. 참가자는 이 단어가 이전 문장에 나타났던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만약 앞 문장에 나타났던 단어이면 ‘예’(‘/’)키를 누르게 하였고, 만약 새로운 단어이면 ‘아니오’(‘z’)키를 누르게 하였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선행 문장의 탐사단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인판단 반응을 하도록 주의 깊게 지시하였다. 탐사반응을 마치면 곧이어 ‘질문 문장’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1초 다음에 질문 문장이 제시되었다. 질문문장의 내용이 두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면 ‘예’(‘/’)키를 누르게 하였고,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오’(‘z’)키를 누르게 하였다. 이 반응을 마치면 한 시행이 종료되었다. 1초가 지난 다음 다음시행이 동일한 절차로 반복되었다. 실험은 연습시행과 본 시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은 모두 4개의 글을 사용하였다. 연습시행이 끝나면 실험절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는가를 확인하였고, 이해가 되었으면 본 시행을 실시하게 하였다. 본 시행도 연습시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본 시행은 총 52개의 글을 연습시행과 동일하게 수행시켰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결과 및 논의

반응오류 자율조절 읽기과제에서는 읽기시간이 표준편차 3보다 늦거나 500ms보다 빠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오류는 대명사 문장이 3.5%이었다. 선행어의 탐사재인과제에서는 오류 반응 3.7%(‘예’를 ‘아니오’라

고 반응한 경우)와 표준편차 3이상인 1.0%의 반응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모두 4.7%이었다.

대명사 문장 읽기시간 대명사 문장의 읽기시간은 모든 변인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선행어의 성별, 선행어 위치, 속성 일치성의 어떤 변인도 대명사 문장의 읽기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어 문장 읽기시간 선행어가 있는 첫 번째 문장의 읽기시간에서 속성 일치성이 읽기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일치 조건(2748ms)이 불일치 조건(3005ms)에 비해서 읽기시간이 257ms 빨랐다 [$F(1,37) = 11.22$, $MSe = 447522.33$, $p < .01$; $F(2,1,22) = 6.07$, $MSe = 208757.84$, $p < .05$]. 이는 속성 일치성 여부가 선행어를 이해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이다.

선행어의 탐사재인시간 선행어 성별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37) = 10.42$, $MSe = 15992.27$, $p < .01$; $F(2,1,22) = 3.93$, $MSe = 11376.03$, $p = .06$]. 선행어 성별에서 여성 조건(910ms)이 남성 조건(957ms)보다 46ms 빨랐다. 선행어 위치의 주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37) = 7.19$, $MSe = 30110.91$, $p < .01$; $F(2,1,22) = 2.38$, $MSe = 15196.49$, $p = .13$]. 선행어 위치가 첫째 조건(907ms)이 둘째 조건(960ms)에 비해서 53ms 빨랐다. 선행어 성별과 선행어 위치의 이원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39) = 7.80$, $MSe = 31660.57$, $p < .01$; $F(2,1,22) = 5.05$, $MSe = 15196.49$, $p < .05$]. 선행어 성별과 선행어 위치의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 선행어 성별에서 여성 조건에서는 선행어의 위치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첫째 912ms, 둘째 908

ms, 4ms 차이), 남성 조건에서는 첫째 조건(902ms)이 둘째 조건(1012ms)에 비해서 110ms 빨랐다 [$F(1,78) = 12.57$, $MSe = 36835.91$, $p < .001$; $F(2,1,22) = 4.71$, $MSe = 23171.45$, $p = .053$]. 그러나 속성의 일치효과는 없었다 [$F(1, F2, p > .10)$].

대명사의 문장읽기과제에서는 어떤 변인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재호(1993)는 성별단서의 유무인 애매성에 따른 읽기시간의 차이를 확인하였지만 애매한 조건에서 세 변인 즉, 표지효과, 초점효과, 및 속성일치효과는 처리부담에 민감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험 1에서는 선행어 문장 읽기시간에서 속성일치효과가 관찰되었다. 단지 그 효과가 다음 문장인 대명사의 이해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어 탐사재인과제에서는 변인들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별범주에 따른 선행어 탐색의 차이는 표지효과가 참조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어 위치의 주효과는 선행어의 초점효과가 참조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예; 이재호, 1993; 1998). 보다 중요한 결과는 성별범주와 선행어 위치의 상호작용효과이다. 선행어가 남성인 조건은 선행어 위치의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여성인 조건은 위치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성별단서가 애매한 조건에서도 성별의 표지효과에 의해서 성별 범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선행어의 위치에 의한 초점 효과가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대안적으로 선행어의 위치에 의한 초점효과보다도 성별단서의 표지효과가 보다 강한 단서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변인의 설명 변량을 비교해 보면 초점효과는 16%이었으며 표지효과는 22%이었다. 성별단서가 애매한 조건에서는 성별단서의 표지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표 1. 선행어의 성별범주, 위치 및 속성 일치성에 따른 탐사재인시간의 평균 (msec)

속성 일치성	성별범주	선행어 위치		평균
		첫째 위치	둘째 위치	
속성 일치	여성	905 (216)	896 (222)	900
	남성	912 (206)	1026 (267)	969
속성 불일치	여성	918 (216)	921 (222)	919
	남성	891 (193)	998 (250)	944

주. () 안은 표준편차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³⁾

성별 속성의 일치성은 선행어 문장의 읽는 과정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대명사를 이해하는 과정이나 선행어 탐사재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어 문장의 성별 속성 형용사(예; ‘뚝뚝한’)와 후보 선행어(예; ‘의사’)의 성별 고정관념적 표상은 선행어의 상황적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성별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적 지식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즉 대명사가 성별 고정관념적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하향적 처리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대명사의 관점에서 보면 성별지식의 깊은 수준까지 탐색된다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대명사는 성별 고정관념적 속성과 선행어의 성별 고정관념적 상황 의미에는 민감하지 않았다. 이는 대명사가 선행어의 성별범주를 파악하는 수준까지만 접근할 가능성을 시사한다(예; Garnham, Oakhill, & Reynolds, 2002).

실험 2. 선행어가 고유명사인 조건

실험 1은 선행어가 역할명사인 조건에서 성별범주와 위치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비록 선행어 위치의 주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여성 역할은 선행어 위치의 초점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남성 역할만 초점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여성 역할명사의 경우(예: ‘여의사’) 표지가 한 성별로 강하게 편향되었기 때문에 부가적 초점(위치) 단서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대명사 참조해결 처리가 일어난 것이며, 따라서 표지효과가 초점(위치)효과에 비해서 선행어의 참조해결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명시적 또는 강력한 암묵적 성별 편향 표지효과가 적으며(예: ‘변호사’) 따라서 선행어의 성별을

3) 두 분의 심사위원은 공통적으로 성별표지의 실험 통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자는 역할명사의 직업은 대부분 남성직업이 많으며 여성직업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직업(예; ‘스튜어디스’)은 그 자체로 남성직업(예; ‘의사’)보다 성별표지효과를 예측하였다. 여성직업은 남성직업에 비해서 직업수가 적으며, 남성직업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명에 성별표지를 외현적으로 표기한다(예; ‘여의사’). 이들 요인들이 혼입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여성역할 24개 중에서 여성역할 13개와 외현표지 9개를 세분하여 반응시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즉 남성명사, 여성역할, 및 외현표지의 세 수준에 대한 반응시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선행어 탐사재인의 반응시간은 각각 974ms, 928ms, 및 944ms이었으며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F(1,74)=2.11, MS_e=10170.50$). 즉 여성역할의 여성역할과 외현표지는 선행어의 탐사재인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가적으로 추론해야하는 남성 역할명사 조건에서는 초점효과가 영향을 더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성별단서의 표지효과가 강한 경우에는 위치에 의한 부가적 초점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성별단서의 표지효과가 약한 경우에만 위치에 의한 초점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별범주와 표지효과의 강도가 혼입된 실험 1과는 달리, 표지효과의 강도를 균등하게 한 상황 하에서 성별범주 변인과 위치에 의한 초점효과를 변이 시킨다면 성별범주 효과와 초점효과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Sanford와 Garrod(1981)에 따르면 고유명사는 역할명사에 비해서 초점효과가 강하다. 그리고 고유명사는 성별범주의 표지효과가 비교적 균등하다. 여성 이름과 남성 이름의 사회적 고정관념성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험 1의 결과가 역할명사에서, 성별범주의 표지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면, 성별범주의 표지효과(즉 고정관념적 편향효과)의 강도가 남성명사와 여성명사에서 비교적 비슷하게 강한 고유명사(예: ‘건희’, ‘미라’)가 선행어일 경우에는 성별범주와 초점(위치) 변인은 대명사 참조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고유명사는 일단 성별범주에 따른 편향이 없기 때문에, 즉 남성이름이건, 여성이름이건 한 성별을 표지하는 강도가 서로 비슷하기에, 선행어의 표지효과는 통제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명사의 표지효과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실험 2에서도 성별범주의 차이가 관찰되고 초점효과와 상호작용 한다면 재활성화 가설이 강하게 지지될 것이다. 그러나 대명사의 표지효과보다 초점효과가 강하면 초점가설이 지지되게 된다. 만약 초점효과와 속성일치효과가 관찰된다면 개념가설이 지지될 것이다. 실험 2는 선행어를 성별간 표지효과 강도가 비슷한 고유명사로

대치하고 실험 1의 결과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이며 심리학 개론을 수강한 대학생 39명이 참가하였다.

실험설계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재료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단지 실험재료의 주인공을 역할명사에서 고유명사로 변경하였다(부록 참조).

실험절차 실험 1과 동일하였다.

결과 및 논의

반응오류 자율조절 읽기과제에서는 읽기시간이 표준편차 3보다 늦거나 500ms보다 빠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오류는 대명사 문장이 5.0%이었다. 선행어의 탐사재인과제에서는 오류 반응 5.1%(‘예’를 ‘아니오’라고 반응한 경우)와 표준편차 3이상인 2.5%의 반응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모두 7.6%이었다.

대명사 문장의 읽기시간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명사 문장의 읽기시간은 모든 변인에서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선행어의 성별, 선행어 위치, 속성 일치성의 어떤 변인도 대명사 문장의 읽기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어의 탐사재인시간 선행어 성별의 주효

표 2. 선행어의 성별범주, 위치 및 속성 일치성에 따른 탐사재인시간의 평균 (msec)

속성 일치성	성별범주	선행어 위치		평균
		첫째 위치	둘째 위치	
속성 일치	여성	863 (163)	924 (190)	894
	남성	920 (176)	984 (178)	952
속성 불일치	여성	934 (179)	943 (193)	939
	남성	910 (194)	964 (174)	937

주. () 안은 표준편차

과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F(1,35) = 2.88$, $MSe = 19979.41$, $p = .09$; $F(1,22) = 2.03$, $MSe = 19529.35$, $p = .16$). 선행어 성별에서 여성 조건(916ms)이 남성 조건(945ms)보다 28ms 빠른 경향만을 보였다. 선행어 위치의 주효과가 피험자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35) = 6.01$, $MSe = 26813.34$, $p < .05$; $F(1,22) = 2.08$, $MSe = 17683.91$, $p = .16$). 선행어 위치에서는 첫째 조건(907ms)이 둘째 조건(954ms)에 비해서 47ms 빨랐다. 그리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속성일치성 변인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명사의 문장읽기과제에서는 어떤 변인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탐사재인과제에서는 실험 1과 일치하는 결과도 있었지만 다른 결과도 있었다. 먼저 일치하는 결과는 선행어의 위치효과와 속성일치효과이다. 선행어 위치에서는 첫째 위치가 둘째 위치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빨랐다. 초점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에 속성의 일치성효과는 여전히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실험 1에서 관찰되었던 성별범주와 선행어 위치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이는 선행어인 고유명사의 성별범주가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험 1에서는 성별범주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40ms)

를 보였지만 실험 2에서는 그 경향성은(28ms)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행어의 속성 일치성 효과는 여전히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선행어의 유형에 관계없이 대명사의 성별단서는 선행어의 성별 범주만을 파악하는 수준에 한정된다는 증거이며, 성별의 표지효과는 대명사의 성별표지보다는 선행어의 성별표지에 비중이 실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 논의

이 연구는 선행어의 성별단서가 동일한 조건에서 선행어의 성별단서의 표지, 초점, 및 속성 일치성 효과를 선행어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실험 1의 역할명사에서는 선행어 성별의 표지효과와 선행어 초점효과도 관찰되었지만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성별표지가 분명한 여성 범주어에서는 선행어 초점에 관계없이 선행어가 할당되지만 선행어의 성별을 추론해야 하는 남성 범주어에서는 선행어의 초점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성별표지 효과 강도가 남녀 이름에서 모두 비슷한 고유명사를 사용한 실험 2에서는 성별표지의 효과인 선행어의 성별범주의 효과나 성별범주와 초점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고, 선행어의 위치인 초점효과만 관찰되었다. 두 실험의 공통적인 결과는 선행어 위치의 초점효과가 참조해결에 하향적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속성 일치성 효과가 대명사의 참조해결에는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초점 가설에 일치하였다.

표지효과와 초점효과의 상호작용 두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얻어진 결과는 선행어의 위치효과이다. 첫째 정보가 둘째 정보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빨랐다. 첫째 언급 정보는 둘째 정보에 비해서 선행글의 초점이기 때문에 초점가설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Gernbacher, 1990; Garrod & Sanford, 1990; Sanford & Garrod, 1981; 이재호 등, 2002). 이재호(1993)는 성별단서가 명료한 조건에서는 선행어의 위치에 따라 선행어와 비선행어의 활성화 수준의 차이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선행어가 첫째 위치(주어)인 경우는 선행어가 비선행어에 비해서 54ms가 빨랐지만 선행어가 둘째 위치(목적어)인 경우는 선행어와 비선행어의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어의 활성화 수준만 관찰하였지만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선행어의 위치효과와 대명사의 성별단서의 효과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성별단서는 선행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는 일차적으로 선행글의 초점 정보를 잠정적인 선행어로 지칭하고 후속 맥락을 고려하여 선행어를 할당하는 과정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예; Sanford & Garrod, 1981; 1989; 이재호, 1993; 1998).

그러나 초점가설이 더욱 강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어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어야 한다. 즉 선행어가 고유명사인 경우가 역할어인 경우에 비해서 초점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예; Garrod & Sanford, 1990; Sanford & Garrod, 1981). 두 실험에서 일관되게 초점효과가 관찰

되었지만(실험 1은 초점효과가 53ms, 실험 2는 초점효과가 47ms). 실험 1과 실험 2를 통합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역할명사(933ms)와 고유명사(930ms)의 탐사시간의 차이와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이는 Garrod와 Sanford(1990)의 주장처럼 선행어 유형 자체가 초점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두 유형의 명사를 선행어로 제시하였고, 성별단서도 분명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두 유형의 선행어가 같은 담화글에 제시된 조건에서는 상대적인 초점효과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실험 1은 초점효과와 표지효과가 상호작용하여 표지효과가 강한 여성 역할에서는 초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표지와 초점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두 제약이 모두 작용하기보다는 한가지의 강한 제약만이 선행어 할당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Marslen-Wilson & Tyler, 1987). 이는 선행어의 유형보다 성별단서의 표지효과가 성별단서의 애매한 조건을 해결하는 강한 단서임을 시사한다. 실험1의 결과에서 표지효과의 설명변량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이 이를 지지해준다.

대명사 성별단서의 탐색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성별의 표지효과와 속성일치효과를 참조해결에 적용하여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과연 어떤 수준까지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지, 즉 대명사의 성별단서의 탐색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선행 연구는 성별단서가 남녀 범주에 동등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언어적으로 분명히 남녀를 지칭하는 단서의 현출성(saliency)은 달랐다. 즉 대명사의 'he'와 'she', 역할명사의 '의사'와 '여의사'가 그것이다. 표지효과는 대명사의 선행어 탐색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 제약임이 분명하다. 선행어가 역할명사인 조건은 선행

어의 성별 정보를 추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는 보편적으로 남성이 많지만 여성도 있음을 추론한다. 그러나 ‘여의사’는 성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명사와 선행어의 성별 표지가 상응하여 선행어 탐색을 촉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외현적 표지인 ‘여’만이 영향을 미친 것인가? 여성 역할에는 ‘간호사’도 있었다. 이는 단순히 여성 표지만으로 접근 용이성을 설명할 수 없다. 성별표지는 언어의 외현적 표지보다는 여성의 사회 인지적 표상이 표지효과를 야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에 영어권에서는 대명사 사용에 변화가 일고 있다. ‘he/she’의 단일 성별을 지칭하는 대명사보다 중성인 대명사인 ‘they’를 단수 대명사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예; Baranowski, 2002). 성별의 표지효과가 참조해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며 추후에 계속 연구되어야 할 변인이다.

역할명사에서 성별의 표지효과는 남녀 범주의 비대칭적 처리를 의미한다. 그러면 성별단서는 선행어의 심적 표상에 어떤 수준까지 활성화되는가? 선행어의 처리과정에서 선행어의 의미 중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정보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정보가 고정관념적 속성이다. 선행어를 기술하는 형용사와 성별 속성의 일치성은 대명사의 선행어 탐색 수준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예; Oakhill, Garnham, & Vonk, 1989; Zwaan & Radvansky, 1998). 그런데 두 실험에서 속성의 일치성 효과가 읽기과제나 탐사과제에 뚜렷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결과만으로 보면, 대명사의 성별단서는 선행어의 범주의 성별 정보만을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명사의 참조해결과 상황 모형 선행어는 대명사를 처리하기 전에 이미 상황모형을 구성하

게 한다. 대명사의 성별단서는 통사 수준의 정보이지만 대명사에 의해서 지칭되는 선행어의 성별은 의미 수준의 정보이며 성별의 고정관념적 속성은 이해자의 지식에 근거한 정교화 수준의 상황 모형 수준이다. 이 연구는 선행어의 성별표지와 선행어의 초점이 상호작용 하여 대명사의 참조해결을 주도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별표지가 명료한 조건(예; ‘여성’)에서는 선행어의 초점효과가 상쇄되었다. 두 제약의 상호작용은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명료한 조건에서 초점효과가 상쇄된 결과와 비교된다(예; 이재호, 1993). 이는 엄격한 재활성화 가설이나 초점 가설의 입장이기보다는 두 입장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성별단서가 만족되는지가 일차적으로 선행어를 탐지하는 일차 과정이며 만약 그 제약이 만족되지 않으면 초점이나 후속 맥락을 기다릴 가능성을 시사한다(예; 방희정, 1990). 그렇지만 대명사는 선행어의 표상을 재활성화 하여 글의 상황 모형을 갱신하는 과정이기보다는 선행 담화글의 상황모형이 하향적으로 대명사의 성별단서와 상호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성별단서는 선행글의 상황모형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선행글의 표상을 응집적으로 유지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미형 (1995). 한국어 대명사. 서울: 한신문화사.
- 방희정 (1990). 글 이해시의 참조관계 해결에 미치는 맥락효과. 미발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호 (1993). 시간경과에 따른 대명사 참조해결과정. 미발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호 (1998). 대명사의 참조해결 과정. 이정모, 이재호 (공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언어와 인지 (155-182쪽). 서울: 학지사.

- 이재호, 방희정 (2003).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성별의 속성 전형성과 집단 일치성의 점화효과. *인지과학*, 14, 37-48.
- 이재호, 이정모, 김성일, 박태진 (2002). 한국어 어휘의 언급순서가 문장 기억의 표상에 미치는 효과: 첫 언급, 최신, 및 의미편향 효과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4, 409-427.
- Banaji, M., & Hardin, C.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 Baranowski, M. (2002). Current usage of the epicene pronoun in written English. *Journal of Sociolinguistics*, 6, 378-392.
- Carreiras, M., Garnham, A., Oakhill, J., & Cain, K. (1996). The use of stereotypical gender information in construction a mental model: Evidence from English and Spanish.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9A, 639-663.
- Corbett, A. T., & Chang, F. R. (1983). Pronoun disambiguation: Accessing potential antecedent. *Memory & Cognition*, 16, 283-298.
- Frederiksen, J. R. (1981). Sources of process interaction in reading. In A. M. Lesgold, & C. A. Perfetti, (Eds.), *Interactive processes in reading* (pp. 361-386).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Garnham, A., Oakhill, J., & Reynolds, D. (2002). Are inferences from stereotyped role name to characters' gender made elaboratively? *Memory and Cognition*, 30, 439-446.
- Garrod, S., & Sanford, A. (1990). Referential processes in reading: Focusing on roles and individuals. In D. A. Balota, G. B. Flores d'Arcais, K. Rayner (Eds.), *Comprehension processes in reading* (pp. 465-48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ernsbacher, M. A. (1989). Mechanisms that improve referential access. *Cognition*, 32, 99-156.
- Gernsbacher, M. A. (1990). *Language comprehension as structure building*.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reene, S. B., Mckoon, G., & Ratcliff, R. (1992). Pronoun resolution and discourse mode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8, 266-283.
- Kennison S. M., & Trofe, J. L. (2003). Comprehending pronouns: A role for word-specific gender stereotype informatio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2, 355-378.
- Kim, S. I., Lee, J-H., & Gernsbacher, M. A. (in press). The advantage of first mention in Korean: The temporal contributions of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factor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 MacDonald, M. C., & MacWhinney, B. (1990). Measuring inhibition and facilitation from pronoun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7, 469-492.
- Marslen-Wilson, W., & Tyler, L. K. (1987). Against modularity. In J. L. Garfield (Ed.), *Modularity in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natural-language understanding* (pp. 37-62). Cambridge: MIT Press.
- Matthews, A., & Chodorow, M. S. (1988). Pronoun resolution in two-clause sentences: Effects of ambiguity, antecedents location, and depth of embedd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7, 245-260.
- Nicol, J., & Swinney, D. (1989). The role of structure in coreference assignment during sentence comprehensio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8, 5-19.
- Oakhill, J., Garnham, A., & Vonk, W. (1989). The on-line construction of discourse models.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4, 263-286.
- Sanford, A. J., & Garrod, S. C. (1981). *Understanding written language*. N. Y.: John Wiley.
- Sanford, A. J., & Garrod, S. E. (1989). What, when, and how?: Questions of immediacy in anaphoric

- reference resolution.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4, 235-262.
- Sanford, A. J., & Garrod, S. C. (1998). The role of scenario mapping in text comprehension. *Discourse Processes*, 26, 159-190.
- Swinney, D. A. (1991). The resolution of indeterminacy during language comprehension: Perspectives on modularity in lexical, structural and pragmatic processing. In G. Simpson (Ed.), *Understanding word and sentence* (pp. 367-386). North-Holand: Elsevier.
- Zwaan, R. A., & Radvansky, G. A. (1998). Situation models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123, 162-185.
- 1 차원고접수 : 2004. 2. 25
2 차원고접수 : 2004. 4. 27
최종게재결정 : 2004. 5. 18

K C I

The Effects of Gender Marking and Focusing on Pronoun Referential Resolution in Discourse Comprehension

Jung-M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Jae-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gender category, antecedent's location, and attribute congruency on pronoun referential resolution.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read (self-paced) a series of sentence pairs where the antecedents of pronouns were of role name nouns, and did a primed recognition test. The results showed some effects of gender category and location in sentence of antecedents. The female role (whose gender markings are distinct) noun antecedents were recognized faster than the male ones (whose gender markings are less distinct), and the first mention antecedents faster than the second mention one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ntecedent's gender category and location in sentence showed; When the antecedent was a male role noun, the first mention antecedent was recognized faster than the second mention ones, whereas when the antecedent was female role noun, the order of mentioning did not make a difference. Experiment 2 differed from Experiment 1, only in that proper nouns whose gender markings are balanced were employed instead of role nouns. The results showed only the main effects of antecedent's location in a sentence. The first mention antecedent was recognized faster than the second one. The interaction between antecedent's gender category and location in a sent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rom a point of view of focus model in discourse comprehension.

Keywords: pronoun, gender marking, focusing, discourse comprehension

부록

실험에 사용된 재료의 고정관념적 속성, 역할 및 이름

남성속성	평정치	여성속성	평정치	남성역할	여성역할	남성이름	여성이름
늑대같은	1.02	화장한	2.97	의사	여반장	성수	숙희
군대가는	1.03	가냘픈	2.95	장교	미망인	종화	다희
건장한	1.05	긴머리	2.95	농부	미용사	동수	미라
힘센	1.05	예쁜	2.93	주례	주부	현용	은아
듬직한	1.06	발랄한	2.87	사장	귀부인	동훈	승희
거친	1.12	아름다운	2.87	형사	마담	명석	지영
어깨넓은	1.13	꾸미는	2.86	검찰관	여학생	영석	은정
강인한	1.22	눈물있는	2.85	청년	안내양	진수	숙희
보수적	1.25	수다스런	2.75	선장	공주	일호	수진
담배피는	1.25	사랑스런	2.70	교도관	여감독	완석	선화
무신경한	1.28	빠지는	2.70	목사	여류화가	성일	애란
무뚝뚝한	1.28	허영심	2.68	역장	간호사	진석	정아
색밖히는	1.31	가슴있는	2.67	신사	여공원	문수	은미
허풍떠는	1.36	질투하는	2.59	신병	시누이	민규	자영
잔인한	1.39	신경질적	2.58	이장	디자이너	태환	상희
바지입은	1.45	지조있는	2.44	하객	스튜어디스	상진	선주
속넓은	1.64	예민하다	2.20	신입사원	발레리나	준석	진희
책임감	1.68	소중한	2.16	범인	미스김	건효	영희
자상한	1.68	분위기	2.10	변호사	여가수	경석	수정
적극적인	1.74	침착한	2.08	수위	할머니	장민	진주
능동적인	1.75	이중적인	2.02	기관사	몸종	찬혁	경화
뚝뚝한	2.02	잘난척	1.85	제소자	미녀배우	효상	선영
여유로운	1.98	이기적인	2.08	신부	슈퍼모델	인철	복희
성실한	1.83	고집스런	1.90	역무원	여의사	홍규	민지

주 성별의 속성단어는 선행연구(이재호, 등 2001)에서 선별하였으며 평정치는 이 연구의 실험 참가자의 평정치이며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험 1의 참가자 80명이 참여하였다. 두 연구간의 평정치간의 Perarson 상관은 .95이었으며, 여성속성의 평균은 2.54이었으며 남성속성의 평균은 1.35이었다[F2(1,47)=134.50, $p < .0001$].